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2014년 5월호



천주교마산교구 사목국
<http://mssamok.cathms.kr>

부모에 대한 의무

(집회 3,1-8)

시작성가

진행자 성가 439장 ‘부드러운 주의 손이’ 를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우리와 함께 있기를 약속하는 주님, 저희와 함께 하소서!
- 언제나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주님, 저희의 마음을 비추어 주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어느 분이 집회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 ¹ 애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들어라. 그대로 실천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 ² 주님께서 자녀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권리를 보장하셨다.
- ³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죄를 용서받는다.
- ⁴ 제 어머니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보물을 쌓는 이와 같다.
- ⁵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자녀들에게서 기쁨을 얻고 그가 기도하는 날 받아들여진다.

- ⁶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장수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는 제 어머니를 편안하게 한다.
- ⁷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아버지를 공경하고 자신을 낳아 준 부모를 상전처럼 섬긴다.
- ⁸ 말과 행동으로 네 아버지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그의 축복을 받으리라.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부모’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이 있습니까?
그것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기쁨을 얻었던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의 미래는 가정에 달려 있고, 가정의 미래는 자녀에게 달려 있다. 가정 공동체 안에서 상호 인격적 성숙을 위해 구성원 서로가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자기다움을 잃지 않아야 하며, 특히 부모는 진정한 부부사랑의 결실이고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최상의 선물인 자녀가 바르게 성장하고 성숙하여 또 다른 하느님의 봉사자가 되도록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쏟아야 한다. 새로운 생명에 대한 준비는 혼인하기 전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녀 출산이 부부 사랑의 절정이라면, 자녀

교육은 부모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요 의무이다.¹⁾

“교육에 대한 부모의 권리와 의무는 인간 생명의 전달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본질적인 것이다. 부모의 자녀교육 권리와 의무는 부모와 자녀 간의 특유한 사랑의 관계 때문에 타인들의 교육 역할과 비교해 볼 때, 본래적이고 일차적이다. 그것은 대치되거나 양도될 수도 없는 것이므로 타인이 완전히 위임받거나 빼앗을 수도 없다.”²⁾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우리 각자가 한 달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을 정하시겠습니까?

기타토의

진행자 우리 소공동체가 이달에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누구든지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마침성가로 성가 454장 ‘기쁜 나의 집’을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1) 가정을 위한 교서, 「가정, 사랑과 생명의 터전」, 15항.

2) 「가정 공동체」, 36항.



궁 금 했 어 요

예수님께서 굳이 열두 사도를 뽑으시고 유다의 공백을 마티아 사도로 채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 조상들에게도 12라는 숫자는 많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큰 집의 열두 대문, 산에 봉우리가 많으면 일만 이천봉, 발이 길어 열두 발 상모라 했고, 삶을 12간지로 구별했지요.

성경의 12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서 비롯되었고 이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킵니다. 모세는 이집트 탈출 후, 열두 지파 수를 따라 시나이 산 위에 열두 개 기둥을 세웠고(탈출 24,4) 여호수아는 요르단 강을 건넌 일을 기념하여 돌 열두 개로 기념비를 세웁니다(여호4,9 참조). 대사제 예복 가슴받이에는 열두 개 보석을 달았으며 그 위에는 각 지파 이름을 새겼습니다(탈출 39,14 참조). 솔로몬 시대에 열두 지방관을 두었고 여러 건축 사업에도 열둘이라는 숫자와 치수를 사용했습니다(1열왕 4,7 참조).

예수님께서 열두 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은 온 인류를 몽땅 구원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마르 3,13-19 참조). 아울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열두 옥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을 약속하는데요(마태 19,28 참조). 말씀대로 천국의 열두 대문에는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과 그 초석에는 열두 사도의 이름이 기록된 사실을 묵시록이 밝혀줍니다(묵시 21,12-14 참조). 빈 유다의 자리를 채워야 했던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에서 말하는 열둘은 전체와 완성입니다.

참 행 복

(마태복음 5장 3절~12절)

하동 본당 해량구역장 우정순 로사

찬미예수님 !

산 좋고 물 맑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저희 하동 본당은 섬진강이 흐르고 매화꽃, 벚꽃, 배꽃 그리고 왕의 녹차로 유명한 작은 시골 본당입니다.

1916년에 공소가 설립되어서 1966년 본당으로 승격되고 내년이면 본당 50주년을 맞이하여 50주년 행사도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는 역사가 꽤 오래된 본당입니다. 그리고 두 분의 신부님과 한 분의 수사님 두 분의 수녀님을 배출한 본당으로써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 본당에는 9개 구역의 소공동체가 있으며 그 가운데 저희 해량구역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글을 쓰는 저는 1995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듬해 레지오 단원 권유를 받고 입단하면서 작은 봉사를 성실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으나 그 당시 원장 수녀님께서 저에게 소공동체장을 맡으라고 하셨고, 열떨결에 맡게 된 소공동체장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해량구역은 처음엔 반원이 3~4명의 적은 수이지만 빠지

지 않고 성실히 소공동체 모임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구역에 조금 큰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소공동체 모임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월 하는 소공동체 모임은 생활 및 복음 나누기를 하면서,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친교를 나누며 따뜻한 정이 넘치는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처럼 외딴 교우로서의 어려움과 다른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토로하며, 서로 위로도 주고 받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시간을 가꾸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주님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며 아끼고 사랑하도록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이라 생각합니다. 작은 시골 본당이라 모든 소공동체가 저희 모임처럼 활성화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서로 노력하면서 모임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동에 오실 일이 있으시면 저희 본당에 들려 주셔서 주님의 은총 듬뿍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하동 본당 해랑구역 〉

시작성가

출석확인 및 인사나누기

1단계 주님을 초대한다.

“한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복음(말씀)을 읽는다.

“... 복음 ...장을 펴 주십시오.”

“어느 분이 ...절부터 ...까지 읽어 주십시오.”

“다른 분이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3단계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큰소리로,
세 번 선포해 주십시오.”

“어느 분이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4단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3분 동안 침묵하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5단계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6단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눈다.

“지난 주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이번 주(이번 달)에 해야 할 활동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할 것입니까? 누가 할 것입니까? 언제 할 것입니까?)

7단계 자유롭게 기도한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소공동체 기도 및 영광송